

전주가 바탕이 되는 한국학 세계화 나선다

전북대와 전주시,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 내달 1~5일 개최

한류문화의 확산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한국학의 현황을 살피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가 오는 11월1~5일 전북대와 전주한옥마을을 일원, 완주 송광사,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된다.

전북대학교와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세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프레대회를 통해 한국학 연구 성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한국학 연구 방향의 필요성을 확장하고 한국학 분야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기조강연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웅 전 원장은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학교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세계화와 한국의 과거사의 미래: 한국 역사 서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미래지향적인 주제로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언어·문화'와 '역사·철학', '정치·경제', '글로벌 시대의 한국학'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화 등을 다양한 학자의 시각에서 진단한다.

비엔날레는 학술행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 외교 관계자 및 학자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장소 마련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1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한국을 알리는 전통 음악 연주로 주한 외교단과 국내외의 한국학 관련 학자들을 맞이하고, 4일에는 전주전통문화 연구원에서 사상건례와 향음주례, 향사례를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4·5일 양일 간 한국전통문

화전당에서의 전통 공예품 및 약식 만들기 체험과 송광사와 금산사에서의 템플스테이 체험 등을 통해 한류의 세계화를 도모한다.

이종민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한류의 세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전주에서 한국학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를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학 분야의 과거와 미래를 되짚고 한국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 발굴하는 한편 한국학의 중심 전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비엔날레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한국학 연구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와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조성진, 첫 스튜디오 앨범 쇼케이스 연다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팬들과 만난다.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조성진은 첫 스튜디오 레코딩 앨범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발라드' 발매에 앞서 오는 11월16일 오후 8시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쇼케이스 '조성진, 피아노와의 대화'를 연다.

연주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콩쿠르 우승 이후 근황, 앨범 녹음, 미국 투어 등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쇼케이스는 네이버 TV캐스트와 클래식 아티스트만을 위해 새롭게 개설되는 V 라이브 클래식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조성진은 지난해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언론과 음악계의 찬사를 받았다. 이후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접속 레코딩 계약을 체결, 이번에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발라드'를 발매하게 됐다.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의 DG 첫 스튜디오 레코딩 앨범이다.

유니버설뮤직은 "조성진이 역대 쇼팽 콩쿠르 우승자 폴리니, 아르헤리치, 짐머만의 계보를 잇는 거장으로서 내딛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자 음악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조성진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발라드 전곡 4개가 수록될 예정이다. 특별히 국내에서만 발매되는 디럭스 버전에는 '녹턴 20번'이 추가로 담겼다.

예약 판매만으로 아이돌 가수들의 음반들 사이에서 음반 차트 상위권에 자리하며 조성진의 또다른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조성진, 피아노와의 대화'는 전 좌석 무료 초대로 진행된다. 유니버설뮤직 공식 SNS, 네이버 책문화 블로그 등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뉴시스



이번 국립민속국악원의 특별공연은 기악합주, 무용, 판소리, 민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풍류문화와 섬세하고 애절한 춤사위, 각 지방의 화려한 풍물가락 등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흥겨운 국악으로 행복한 하루'

진안군, 문화가 있는 날 맞아

진안군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난 28일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흥겨운 가을을 맞이하여 흥겨운 국악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국립민속국악원의 특별공연은 기악합주, 무용, 판소리, 민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풍류문화와 섬세하고 애절한 춤사위, 각 지방의 화려한 풍물가락 등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히 평소 국악에 대해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군민들에게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을 통해 우리국악을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접에서 더욱 뜻 깊은 공연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요일' 문화가 있는 주간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9일에는 신이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만든 신비한 음악 '이카펠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문화도시, 지리산소극장서 '판페스티벌' 개최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근)는 29일 오후 2시부터 예가람길과 지리산소극장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 페스티벌'은 2016년 남원문화도시 시민문화교육 프로그램인 '판'과 '이카데미'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수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2016년 한해동안 '판'과 '이카데미' 수업을 진행한 9개의 단체들이 직접 축제의 장을 꾸밀 예정이다. 올해에는 연극과 뮤지컬, 암화체험 이외에도 시민기획 프로그램 및 공연, 사진전시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지리산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남원연극협회의 연극 '동원재판', 달란트연극마을의 뮤지컬 '빨래', 소리울림의 타악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남원무용협회에서 준비한 남원춤 공연도 함께한다. 예가람길 광장에서 펼쳐지는 체험 및 전시시는 우리꽃누름의 암화체험을 비롯해 아삭창의사교력연구소의 어른이놀이터(시민기획체험행사), 아트가든스쿨과 지리산씨의 화분 및 문화지도를 전시한다.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도 수시로 상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도시사업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양산한 문화전문인력은 시민의 삶의 질을 살찌우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 남원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3년째를 맞는 남원 문화도시

(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4년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공연 지원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북 대표 축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관광객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2016'에 새만금상설공연(아리)와 테라코타체험 등 4가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재단의 이 같은 취지는 전북의 대표축제에 전시, 공연,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상품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역적 특수성 및 축제의 가치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하고 전통 민화를 바탕으로 테라코타 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민화 가치'와 '한지'와 '한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지인형스탠드', 개성 있는 디자인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나만의 에코백' 등 총 4개의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특설무대에는 축제에 방문한 관광객과 익산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시즌2(아리)를 올린다. 작품은 바다와 땅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새로운 땅 '아리울(새만금)'의 새 지도자 '아리' 공주의 사랑과 희망, 공준과 평화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 스태프 모집

(재)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지)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스태프를 오는 11월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마케팅팀(마케팅지원 1명), 이벤트팀(공간디자인 1명), 프로그램팀(해외영화 2명, 한국영화 1명), 홍보미디어팀(매체홍보(서울) 1명, 홍보콘텐츠 1명), 관객서비스팀(웹콘텐츠 1명), 총무지원팀(총무지원 1명), 행정팀(지원활동가 운영 1명)으로 총 7개 팀에서 10명을 모집한다.

채용분야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해당업무 근무지 거주 또는 근무기간 중 근무지 거주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부문에 따라 외국어 및 운전 등 필요한 요건이 있으며, 영화제 유경험자 및 영화관련 경력자를 우대한다.

접수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메일 iff_recruit@iff.or.kr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문의 전주국제영화제 행정팀 288-5433.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0월 28일>

<p>▷쥐띠 48년생: 어려움이 따르나 귀인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60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운. 72년생: 다투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성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라. 84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p>	<p>▷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라. 85년생: 한쪽의 말만 듣고 편 가르기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때.</p>	<p>▷호랑이띠 50년생: 짐작은 금물. 때로는 상황에 자신의 운을 맡겨보라. 62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운. 74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답답해 한다.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투기나 투지는 불리하다.</p>	<p>▷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인과 함께 화합하는 일은 좋은 결실.</p>
<p>▷용띠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다. 76년생: 자신보다 약자에게 선혈을 빼돌린 좋은 일이 생기는 운.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p>	<p>▷뱀띠 5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나. 65년생: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못하는 운. 77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생각하라. 89년생: 외면적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p>	<p>▷말띠 54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말리게 된다. 66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내보내라. 78년생: 문자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p>	<p>▷양띠 55년생: 상황에 대한 관태를 느낄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 막힘이 생기는 운.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니 혼자 고만하지 마라.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금전적으로 막히는 상황이다. 인력으로 해결되 지않는다. 68년생: 문서에 깊심이 비추니 빨리 움직이면 좋은 결과. 80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차근차근 진행하라. 92년생: 익숙했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p>	<p>▷닭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원행은 삼가라. 69년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93년생: 동기인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운이다.</p>	<p>▷개띠 46년생: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라.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결과를 얻으나 늦게 움직이지마라. 82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p>	<p>▷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 덕으로 돌아올 것.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나 후반에는 다시 화합가능.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 막상 얻으면 마음이 변하게 된다.</p>